

미술품 속에 깃든 원융의 세계

《불교미술을 보는 눈》 펴낸 김영재씨

대부분의 불교미술서가 미술의 입장에서 불교미술을 바라본 것이라면 이 책은 반대로 불교에서 미술을 바라본다. 지은이는 불교미술을 '실용적 불교용품과 미술적 조형의지를 습합하는 원융의 예술'이라 정의하고, 불경과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품 속에 깃든 불교의 사상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옛말에 사람 못 되는 게 중 되고, 중 못 되는 게 부처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처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불교’와 ‘미술’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단언하는 미술평론가 김영재씨(53)가 파악하는 불교미술은 ‘깨달음’의 한 형식이다. 팔만사천에 달한다는 경전에 다르 아니며 부처와 중생과의 소통을 위한 방편이다. 그가 최근 펴낸 《불교미술을 보는 눈》(사계절)은 이런 점에서 기왕에 나와 있는 이 분야 책들과는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책들이 미술의 입장에서 불교미술을 바라본 것이라면 이 책은 반대로 불교에서 바라본 미술이라는 것, 따라서 불교미술을 보는 ‘눈’이 애당초 다른 것이다.

불교사상과 대중성 결합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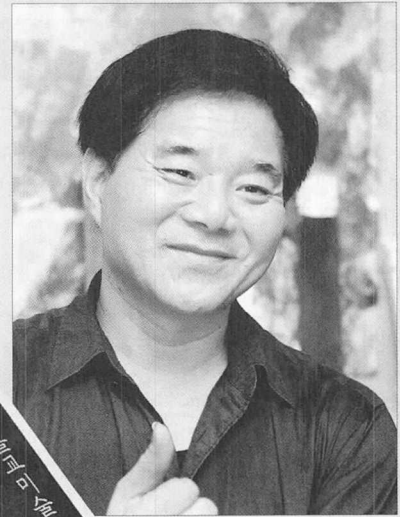
가령, <관음보살도> 한 장이 있다 하자. 이를 미술 작품으로 생각한다면 옷자락의 선이 아름답다거나 숨이 막힐 듯한 미소라거나 하는 식의 평가와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이 <관음보살도>는 사실, 관세음보살의 힘을 빌어 재난을 소멸하고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는 기원이 깃든 것이다. 지은이는 바로 이 점, 불교 미술품 속에 깃든 불교의 사상체계, 교리, 시대, 문화적 배경 등을 해석해 알기 쉽게 풀어어나간다. 미술사가나 평론가들이 놓친 불교사상의 정수와, 불교학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대중성을 불교미술을 통해 결합시킨 것이다.

‘미술적인 발상에서 불교를 도입하거나 불교에서 미술적인 표현을 빌린 조형품을 중심으로

하되 실용적인 불교용품과 미술적 조형의지를 습합하는 원융의 예술’이라는 게 지은이가 정의하는 불교미술로, 불교의 삼보(석존이라는 부처와 석존의 깨달음을 일컫는 법, 승단의 수행)를 비롯해 신도들의 신앙, 예배의 대상을 객관화한 시각적 조형물을 포함한다.

‘불교미술이란 무엇인가’ ‘석가모니의 두 가지 생애’ ‘법이라는 이름의 부처’ ‘부처님의 몸, 보신불의 세계’ ‘부처님의 집, 절’ ‘선불교와 불교미술’ ‘나라마다 다른 불교미술의 세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 미술’ ‘광대무변한 만다라의 세계’ ‘이 산하가 불국토니라’ 등 목차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사찰의 크고 작은 건물, 불상, 불화, 탑, 장식, 각종 조형물 등을 30여점에 달하는 다양한 도판을 예로 들어 보이며 두루 살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논의의 중심이지만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사례도 빼놓지 않아 불교의 생성과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석가모니의 두 가지 생애’라는 부분을 보자. <팔상도>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아는 부처님의 일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대승경전에 의해 장엄화하고 비유된 것이다. 마귀, 지옥, 극락 모두 방편이고 비유다. 부처님의 신통력이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지 하늘을 날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처의 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다.



김영재씨

사계절/A5신/356면/16,000원



이밖에도 무수한 불교미술의 소재가 된 <달마도>의 달마선사가 왜 갈대를 타고 강을 건넜는지, 을사 도선과 화엄사 의상이 중국에서 만난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등도 흥미로운 일화와 해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불경과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돋보여

불교 경전과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미술, 나아가 원형 문화와 민속 신앙 등 문화사 전반에 대한 탄탄한 이해는 이 책의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다. 각종 미술품에 깃든 문화적 배경과 ‘신앙’의 형태에 대한 흥미진진한 해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향해 있던 세상의 눈길을 ‘달’로 이끌어준다.

김씨는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 화가로 활동하다 미술이론과 평론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을 정립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이 우리나라 미술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대승불교정신 때문임을 새삼 발견했다고 밝힌다. 그는 <고려 불화의 화엄사상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미술의 원형과 민화, 불교미술 등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활발한 저작활동과 방송강연 등을 해왔다. <미술이야기> <귀신 먹는 까치호랑이> <한국양화백년> 등은 그 결실이다.

— 박남정(자유기고가)